

‘유니크 베뉴’ 활용해 전남, ‘마이스 허브’ 도약을

아침을 열며

이건철

전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컨벤션이란 사람들이 특정한 활동을 하거나 협의를 위해 한 장소에 모여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하며, 전시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이러한 컨벤션은 시작부터 여행·호텔·운송·항공·유통·식음료업 등 여러 산업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회의 개최지역의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돼 1970년대부터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유치하는 컨벤션산업(회의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설정한 관광산업에서도 컨벤션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다음의 3가지 장점 때문이다. 관광객의 규모가 크고, 관광에서 꽃이랄 수 있는 장기간 체류형 관광이 되기 쉽고, 회의를 위해 내방한 관광객은 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가 많아 1인당 평균소비액이 일반관광객의 3배를 상회하는 장점이 그것이다. 요컨대 대규모 고소득 관광객의 장기간 체류를 통해 부가가치 규모가 큰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컨벤션의 가장 부각되는 장점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컨벤션에 비교적 일찍 경쟁적으로 컨벤션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1979년 서울코엑스컨벤션센터를 필두로 부산(2001), 경북(2001), 제주(2003), 고양(2005), 창원(2005), 광주(2005) 대전(2008), 인

천(2008), 새만금(2014), 경주(2015), 수원(2019), 울산(2021) 등지에 13개의 컨벤션시설이 입지해 있고, 서울(SETEC), 서울무역전시장, 대구(GUMICO), aT센터, 대전무역전시관 등 전문전시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컨벤션시설 또한 서울과 부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컨벤션센터는 물론이고, 전문전시시설과 호텔 관련시설 등이 전남과 강원도에는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국제회의 건수가 최다인 싱가포르(877회) 다음으로 서울(688회), 부산(212회), 제주(139회)가 각각 3위, 8위,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과 강원도는 개최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이 컨벤션의 특정지역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컨벤션에서 소외된 전남도와 강원도가 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상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컨벤션시설 확충을 통한 회의산업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싶다.

그렇다고 대도시처럼 대규모 컨벤션 시설부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컨벤션의 유형과 철저한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가족 단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객 규모가 축소되어 국내외 회의의 때문에 찾는 관광객의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컨벤션센터나 전문전시시설부터 갖춰놓고, 초창기 수요 부족으로 인한 적자로 운영비를 감당못해 존폐 여부까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전에 컨벤션의 추세와 철저한 수요 등을 정확히 예측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

면서 회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규모 컨벤션시설인 ‘유니크 베뉴’가 등장해 각광을 받고 있다. 유니크 베뉴란 독특한(Unique) + 장소(Venue)의 합성어로 회의나 행사 개최 도시의 고유한 컨셉이나 그 곳에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나아가 ‘코리아 유니크베뉴(Korea Unique Venue)’는 컨벤션, 호텔 등 전문 회의시설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할 지역 고유의 특색과 매력을 지닌 회의를 위한 시설·장소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선정한 37개소와 지난 해 선정한 15개소를 합쳐 ‘코리아 유니크베뉴 52선’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여수 예술마루’가 유일하게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선정돼 기대가 크다. 예술마루는 문화예술의 너울이 가득 넘치고 전통가옥 마루처럼 편안함이 깃든 곳이라는 의미로 이색적 매력과 함께 회의·전시 기반시설을 갖춰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유니크베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예술마루는 전남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지역 MICE시설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미팅테크놀로지 시설을 획급해 설치함으로써 4계절 낮과 밤 불거리가 가득한 스마트 마이스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도내 전역에 걸친 ‘2023 전남도 유니크베뉴 20선’을 발굴하고, 인증 현판 배부, 마이스 박람회 등 공동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과 홍보책자 제작,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컨벤션사업에서 후발인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손잡고 유니크베뉴를 활용해 국내외 마이스허브이자 고부가가치 관광지로 도약하길 기원한다.

社說

‘스카이 캐슬’ 현실판 된 봉선동의 민낯

공교육·입시제도 개선 시급

‘광주판 대치동’으로 불리는 봉선동은 ‘사교육 전쟁터’였다. 전남일보가 연속 기획보도중인 ‘호남 사교육 1번지 봉선동 집중해부’를 통해 봉선동만의 사교육 민낯이 파헤쳐졌다. 봉선동 학부모들은 초·중·고·대학·대학원·명문대·명문대 입학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봉선동에 위치한 명문 사립중도 수업료 등이 일반 사립대학교를 웃도는 수준이다. 과거 ‘귀족학교’로 불릴 정도다. 평균 수업료와 방과후 활동비·해의 및 특별활동비 등까지 더하면 연간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자사고·과학교 진학률이 높은 탓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해당학교를 무조건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결국 봉선동 키즈들은 초·중·고·대학·대학원·명문대 입학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의 목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립중은 ‘의대·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진학하기 위한 관문일 뿐이다.

수능 한 문제에 당락이 결정되는 명문대인 만큼, ‘족집게 문제’를 받기 위해 더욱더 사교육의 늪에 빠져드는 곳이 봉선동이다. 특히 부촌인 봉선동 학부모들은 자녀 성공 욕이 강하다 보니 학교보다 학원 의존도가 갈수록 높다고 한다. 봉선동이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현실을 다룬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현실판 같다. 자녀들을 남들이 선망하는 속칭 명문대에 보내고 싶어 하는 현실 속 부모들의 욕망을 다룬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어쩌면 본보가 기획보도중인 봉선동의 민낯이 드라마 속 ‘입시 전쟁’보다 더 잔인한지도 모르겠다.

공교육의 위기는 학부모들의 관심을 사교육 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최상위권 대학 진학이 부와 지위의 대물림 수단으로 여겨지는 교육 문화가 사교육 시장을 부추긴 꼴이다. 하루빨리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입시과정의 대수없이는 교육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지속가능한 김 산업 정부비축이 답이다

수급 불균형 정부가 대비해야

최근 김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김을 비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널뛰기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은 분명 필요하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김을 생산하는 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한다.

세계 각국에서 냉동 김밥이 인기를 끌며 해외 수요가 폭증한 데다 생산량이 줄면서 김 값은 천정부지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마른 김 도매가격은 100장 한 속당 평균 1만 7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4% 올랐다. 마른 김 10장의 소비자가도 1326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상승했다. 8000원 수준이던 김밥용 김 한 봉지도 불과 6개월여 만에 1만1000원대로 40% 가까이 급등했다. 수은 상승 등의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완도와 해남을 비롯한 국내

주요 산지에서도 해수면 온도가 연평균 20도에 육박하면서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김을 비축할 경우 자연재해나 수산 자원의 감소, 국제 무역의 변동성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중요한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김을 정부가 비축해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 수출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될 경우 정부 비축에 따른 예산 부담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양식 면허 확대와 가공시설 확충도 과잉생산 등 미래 벌어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면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 시장에서 김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에 나서야 한다. 해외 시장에서 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후위기 시대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은 식량안보와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품종개발부터 양식과 가공, 유통·수출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을 건립하는 것도 김 산업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 마네즈나야 광장 분수대에 서 한 소녀가 더위를 식히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이제 곧 휴가철이다. 이른 무더위에 휴가지를 고민하는 이가 늘고 있고, 국내 관광지들도 여행객을 맞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수요 폭발로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올해는 ‘국내에서 짧고 저렴하게 즐기는 여름휴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인데, 이는 고 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합리적이고 가성비 높은 여행을 찾는 ‘실속 피서객’이 늘어나고 있는게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최근 데이터 컨설팅 기업인 피엠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올 여름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6.2%가 ‘여름휴가때 여행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때 27.0%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휴가 비용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 중 22.0%가 ‘1인당 20만~40만원’이라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위였던 ‘40만~6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절반 가까이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또 여행 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70.8%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휴가 기간으로는 ‘2박 3일’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고물가 시대 여름휴가 키워드로 ‘국내’, ‘저비용’, ‘단기’ 등이 떠오르면서 전남도와 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남도한바퀴’는 외지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와 KTX 광주승정역에서 출발한다. 각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재미있는 설명을 통해 여행객에게 전남 관광지의 역사나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1만2900원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남 핵심 여행코스를 만끽할 수 있다.

‘남도한바퀴’는 최근 새 단장을 마치고 여름 코스 운영을 본격 시작했는데, 쪽뽕은 해안가와 숲, 섬과 바다 등 남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8개 코스로 구성됐다. 전남 관광플랫폼 앱을 내려받아 회원으로 가입하면 숙박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 여름 가성비 넘치는 ‘알뜰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불거리 가득한 남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